



IPR DESK SEOUL

news from KOREA



목차

1.

행사

1.1 한·유럽특허청(EPO) 청장 회담

2.

심화

2.1 관세청: 위조품 근절을 위한 노력

2.2 한-EU 자유무역협정

3

통계

3.1 특허청: 2009년 4/4 분기 통계

4

법령

4.1 한국, 음원 불법 다운로드 세계 2위

5

분쟁

5.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 기기 업체 상대로 특허소송

6

뉴스

6.1 한국 정부, 특허 분쟁 관련 국내 기업 지원

안녕하십니까.

23 번째 뉴스레터이자 IPR Desk Network 와 로마 본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그래픽을 사용한 첫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하여 당 사무소가 전하는 소식들은, 로마 본사가 감수하고 발행하는 IPR Desk Network 통합뉴스레터(Newslatter Corporate) 에 다른 Desk 에서 전하는 소식과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호부터 당 사무소의 뉴스레터 또한 2 달에 한번씩 제공될 것이며, 법령, 분쟁, 행사, 뉴스, 심화, 통계 및 용어의 7 가지 섹션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스레터가 한국에서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prdesk.seoul@ice.it, deskiprs@korea.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월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이탈리아 지식재산권 사무소

행사

한·유럽특허청(EPO) 청장 회담

2009년 12월 1일, 고정식 한국 특허청장과 Alison Brimelow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청장이 서울에서 청장회담을 갖고 특허정보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확대, 특허심사하이웨이 추진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 청은 유럽특허청의 특허검색시스템인 EPOQUE-net을 한국 특허청이 시험 사용할 것과 특허심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교환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양 청의 심사수준과 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특허청장은 특허심사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 교류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한국 특허심사관들이 2010년 유럽특허청 심사관 교육프로그램(EPO Academy) 4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새로운 특허심사관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양 청은 한·EPO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기관간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실시되면 특허청은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추진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From <http://www.kipo.go.kr/>

심화

1. 관세청: 위조품 근절을 위한 노력

관세청은 2009년 진품 기준 총 12억5천만원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적발하였다. 이는 2008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은 최신 자동 화물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의 관세청과 협력을 증진하여 최신 유명브랜드 가방과 다른 위조품의 밀수를 단속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위조품 제조와 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지난 2006년 세계관세기구(WCO)가 대한민국을 지식재산권 보호 우수국가로 선정하면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9년 4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이래 20년만의 최초이다.

관세청 허용석 청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보다 기업 친화적이고 법이 준수되는 국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공무원 교육을 계속 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타국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위조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품의 해악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WCO 아시아-태평양 관세청장 33명이 참가하는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회의에서는 “녹색 관세청”과 친기업 •친환경적인 통관환경조성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From *The Korea Times* - 2010.01.28

심화

2. 한-EU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EU 간 FTA 협정문이 현재 EU 27 개 국가의 22 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한-EU FTA 는 한국 국회와 EU 의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받은 후 전면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FTA 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관세는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 측은 지난 2007 년 5 월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9 년 7 월 협정이 타결되어 지난 2009 년 10 월 15 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2010 년 1 사분기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며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협정문에 따르면 수입액 기준으로 EU 측은 76.7%, 한국 측은 69.4%에 달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3 년 안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EU 품목의 99.4%, 한국산 품목에 대해서는 95.8%에 달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향후 15 년간으로 한국 측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한 낙농과 수산업 분야를 제외한 공산품 부분의 관세는 7 년 내 전면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 10 장에 다루어져 있다.

제 1 절: 일반규정

제 2 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제 1 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 2 관: 상표

제 3 관: 지리적 표시

제 4 관: 디자인

제 5 관: 특허

제 6 관: 그 밖의 규정

제 3 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제 1 관: 민사조치 절차 및 구제

제 2 관: 형사집행

제 3 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 4 관: 그 밖의 규정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는 한국 64개 EU 162개의 목록이 부속서에 기재되어 상호보호에 합의하였다. 이에 포함된 이탈리아 측의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다.

From The Korea Herald - 2009.11.06

보호되는 명칭	제품
Aceto balsamico Tradizionale di Modena	소스 - 양념
Cotechino Modena	돼지고기 소시지
Zampone Modena	돼지고기
Mortadella Bologna	큰 돼지고기 소시지
Prosciutto di Parma	햄
Prosciutto di S. Daniele	햄
Prosciutto Toscano	햄
Provolone Valpadana	치즈
Taleggio	치즈
Asiago	치즈
Fontina	치즈
Gorgonzola	치즈
Grana Padano	치즈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치즈
Parmigiano Reggiano	치즈
Pecorino Romano	치즈

보호되는 명칭	제품
Chianti	와인
Marsala	와인
Asti	와인
Barbaresco	와인
Bardolino	와인
Barolo	와인
Brachetto d'Acqui	와인
Brunello di Montalcino	와인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와인
Bolgheri Sassicaia	와인
Dolcetto d'Alba	와인
Franciacorta	와인
Lambrusco di Sorbara	와인
Lambrusco Grasparossa di Castelvetro	와인
Montepulciano d'Abruzzo	와인
Soave	와인
Campania	와인
Sicilia	와인
Toscana	와인
Veneto	와인
Conegliano Valdobbiadene	와인

통계

특허청: 2009년 4/4분기 통계

특허청 2009년 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출원은 총 101,3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등록은 총 35,363건으로 14.8% 감소하였다.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은 각 1.8%, 1.6%씩 소폭 감소하였으나, 디자인은 0.7%, 상표는 11.1% 증가하였다. 특히, 실용신안에 있어서 외국인의 출원이 16.5% 증가하였으며, 상표에 있어서는 내국인 출원이 16.2% 증가하였다.

총 한국인 출원은 2008년 4분기 81,370건에서 2009년 4분기 86,336건으로 6.1% 증가한 반면, 총 외국인 출원은 17,576, 건에서 14,974건으로 14.8% 감소하였다. 총 출원 중 외국인의 비율 또한 17.8%에서 14.8%로 감소하였다.

지식재산 등록은 14.8% 감소하였다. 각 권리별로 특허 2.0%, 디자인 6.5%, 상표가 31.5% 감소하였으나, 유일하게 실용신안 등록은 1.5% 증가하였다. 내국인 등록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이 각 2.4%, 1.9%의 증가를 보인 반면 디자인과 상표는 각 4.1%, 34.2% 감소하였다. 외국인 등록은 디자인이 31.5%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상표 23.1%, 특허 14.2%, 실용신안 13.6%가 그 뒤를 이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탈리아는 157건을 출원하여 전년 동기 대비 40.1%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등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인 다른 외국 국가들과 달리 29.8%의 증가를

기록하며 61건을 등록하였다. 중국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09건을 등록하였다.

From <http://www.kipo.go.kr>

법령

한국, 음원 불법 다운로드 세계 2 위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음악포럼인 *Music Matters*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음원 불법다운로드를 많이 받는 나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전세계 13개국의 8500명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지난 1월 24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음악산업 컨퍼런스인 2010 Marché International du Disque et de l'Edition Musicale (MIDEM)에서 발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인 13개국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헝가리,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다운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국 응답자의 약 68%, 한국 응답자의 약 60%, 스페인 응답자의 약 46%가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총 응답자의 29%가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문조사가 단지 13개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을 통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것까지 불법 다운로드 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들어 설문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무료 스트리밍을 통하여 약 30초에서 1분까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초고속 인터넷이 한국에 급속하게 보급된 것의

한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 정부는 소위 “삼진아웃 저작권법”을 지난 7월 도입한 바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혹은 전송을 중단할 것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 전송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 없이도 가능하다.

From *The Korea Times* - 2010.01.28

분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 기기 업체 상대로 특허소송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976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지난 2009년 8월 ETRI는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포함한 전세계 19개 주요 이동통신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WCDMA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포함한 3세대 이동통신 특허 기술에 대한 것으로, ETRI는 지난 2008년 이미 미국 버지니아 법원에 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TRI 측에 따르면 이미 2개 업체와 200억원대 규모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언론에 의하여 이 2개 업체가 미국의 애플과 대만의 HTC인 것으로 밝혀졌다. ETRI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승소할 경우 로열티가 최대 3000억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송과 관련된 7개의 특허는 WCDMA와 CDMA 2000 기기에서 전력소모량을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데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00년 이동통신 국제표준규격에 채택됐고,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각각 미국에서 특허된 바 있다. ETRI 측에 따르면, 3세대 기기를 생산하는 전세계 모든 제조사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From *The Korea Times* - 2010.01.14

뉴스

한국 정부, 특허 분쟁 관련 국내 기업 지원

1월 14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일부로 특허피물과의 분쟁에 휘말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발생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여 국내 대학 공공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 매입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1961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소위 “특허피물(Patent Troll)”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거나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특허피물이란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침해로 타기업에 소송을 걸어 이득을 취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획득전략’을 추진하여 기업이 핵심 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별로 최적의 획득전략을 마련해 방어용 특허를 선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에서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덴마크, 영국, 캐나다 5개국과 PPH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특허권 행사 관행 정립을 위해서 ‘특허권 권리남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From *JoongAng Daily* - 2010.01.15